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⑪ 강원도 동해시 감추사 음나무

악귀 막아준다 믿던 그 나무, 도량 한켠에…

순간 거센 바람이라도 일면 거대한 파도가 들이칠 것만 같은 경내에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대웅전은 보이지 않고 관음전만 견고하게 있다. 법당에 들어가 절부터 해야 할 것 같지만, 바다와 평행으로 걸려 있는 주련에 눈길을 준다.

"해안가 외롭게 막혀 있는 곳 보타 낙가산 / 도량의 교주이신 관세음보살 / 헤아리기 어려운 네 가지 덕을 받아 거침없이 사네 / 서른두 가지 몸으로 나타나시어 열네 가지 두려움을 없애주시네"

해안도로에서 과선교를 건널 때부터 슬금슬금 밀려온 낯설음이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 철책선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고립되는 듯한 두려움이 해일처럼 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 관세음보살만 연이어 부르면 터무니없는 근심 걱정 끼어들지 못 하고 편안히 머물다 갈 것 같다.

감추사는 백제 무왕과 혼인한 신라 선화공주로부터 시작된다. 원인 불명의 피부병에 걸린 왕비는 온갖 약에도 낫지 않자 지명법사의 권유에 따라 감추해변으로 옮겨 치료에 전념한다. 3년 동안 자연동굴에 불상을 모셔 놓고 기도를 하고, 북산 용산소에서 매일 목욕재계를 하던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건네주는 묘약을 마시고 긴 투병을 마친다. 명의는 부처 혹은 관세음보살일 것이고, 무왕은 부처의 은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명을 따 감추사라는 절을 세운다.

그뒤 일은 1990년 8월 신도회장 이름으로 세운 안내판을 보면, "그후 신도들은 대은사 분암 또는 신건암이라고 보전하여 오다가 서기 1959년 해일에 의해 유실된 것을 서기 1965년에 감운법사가 내사하여 낙산의 절경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천연약수는 수중지수라 하여 수명을 감로수라 짓고 사찰을 중건하고 사찰명을 감추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965년에 삼성각 · 용왕각 · 요사채 1동이 세워졌고, 1979년에는 박복수라는 이가 절 입구에 5층 석탑을 건립하였고, 2006년에는 관음전이 지어졌단다.

감추사의 감추(甘湫)는 '달디 단 못' 정도로 옮겨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동해의 감추어진 비밀 사찰로 생각하며 꼭 가보기를 강추한다. 그것은 기암절벽으로 이어져 있는 신비로운 풍경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공간에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말끔히 씻겨줄 것 같은 사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번뇌를 잠시 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울러 수평선 벼랑에서 이겨내기 힘든 아픔이 산더미처럼 몰아쳐 와도 해수관음상 앞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히 염원하면 선화공주가 얻은 축복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솟구쳐서다.



동해 감추사 음나무(사진 오른쪽 식물)

비탈에 촘촘히 들어선 달동네처럼 비좁고 경사진 계단을 조심조심 걸으며 곳곳을 둘러보는데, 해수관음상 뒤쪽에서도 감추사중창건감운당공덕비 앞에서도 음나무들이 돋보인다. 그것은 소나무, 향나무의 길쭉한 잎만 보다가 손가락을 쫙 펼친 손바닥을 보는 듯한 널찍한 잎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관심을 두고 본 건 음나무가 가지는 귀신 퇴치 문화가 생각나서다.

두릅나무과 낙엽 교목인 음나무는 전국 어디서든 잘 자라는 나무로 개두릅, 엄나무, 음나무로 부르다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음나무로 통일되어 올라가 있다. 개두릅은 두릅나무의 새순인 두릅과 모양이나 맛이 비슷하지만 음나무 새순이기에 원조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의 접두어 '개'를 붙여 개두릅이라 하고, 엄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나 있는 게 엄중해 보여 엄나무라 하고, 음나무는 한글 변화 과정에서 엄나무가 음나무로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집 주위에 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오래 살고 대표적인 밀원식물이고 목재로서도 유용한 가치가 있어서다. 특히 모든 불행의 근원이 나쁜 귀신이라고 믿었던 시절 음나무 가시가 악귀의 잠입을 막는다고 해서 문설주에 걸어놓았다고 하는데, 시대가 변한 만큼 이 문화는 사라지고 없다.

최진규 약초학자에 따르면, 가시가 있는 식물은 악성 종양이나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음나무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몸에 침투해 생긴 신경통이나 관절염, 그리고 타박상, 근육통, 근육마비, 입안의 염증, 만성 대장염, 어깨와 목이 뻣뻣한 것, 갖가지 종기, 종창, 옴,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자연에서 약초로 쓰이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들이 자라는 곳은 척박한 조건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은 숱한 벌레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방어 물질을 내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약성을 지니게 된다.

장기간 머물기에 위태로워 보이는 터 같지만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바닷가의 감추사,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음나무 새순 한 입 넣거나 껍질 삶은 물을 음용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면, 아, 머무는 곳이 극락이 아닐까.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⑪ 정복선의 '아무 곳이나 다 도원'

桃源, 그 빛나는 사바세계

〈도원〉

아무 곳이나 다 도원/ 정복선

이곳이 도원? 아무렴 도원(桃源)이지
벼르고 별러서 온 곳이니,
밥 지을 일 없이 간호사실에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고
환자와 더불어 온종일 뒹굴뒹굴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선사(禪師)처럼,
흰 담벼락은 사뭇 아스라해서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한 줌에
가져온 시집이나 산문집 읽고
핸드폰 뉴스, 카톡, 사진, 멜론이나 검색하고

여기저기, 분수 흩어지는 못에 대리석 연꽃수반에
마음 밑바닥의 상심 회심 여여심(如如心)을 꺼내어
던진다, 하나, 하나, 동전들처럼
아무리 던져도 소용돌이치며 가라앉는다
복사꽃은 그림자도 떠오르지 않고,

하루는 저리 투박하고
벽을 둘러싼 덩굴은 무진한데
흠모했던 그 많은 달빛들은 삭은 명주실이다,
지루한 표류도 이내 끝날 때가 온다
지나가고 나면 울새울음만 귓가에 남겠지

수반에 초승달이 빠져 헤엄칠 무렵
마침내 손끝에 꽃잎 한 점 밀려온다면, 그곳이 도원,
아무 곳이나 다 도원이야

–정복선 시집, 〈젊음이 이름을 적고 갔네〉, 문예바다, 2022

도원(桃源)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준말이다. 이상향(理想鄕, 유토피아)을 뜻한다. 그런데, 그 도원이 왜 이리 가슴 저미는가. '벼르고 별러서 온 곳'인데 왜 이리 가슴 때리는가. '밥 지을 일 없'고,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고', '온종일 뒹굴'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선사(禪師)처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한 줌에' '시집이나 산문집 읽고', '핸드폰 뉴스, 카톡, 사진, 멜론이나 검색하고', 틀림없이 도원은 도원이다. 그런데, 왜, 마음이 결리는가.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밥 지을 일 없이'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는데 'Who'가 먼저 결렸다. '밥 지을 일 없이'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긴 하는데, '간호사실에'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는 것이다. '온종일 뒹굴뒹굴' 하긴 하는데 '환자와 더불어' '온종일 뒹굴뒹굴' 하는 것이다. '사뭇 아스라' 한 '흰 담벼락'도 결렸다. 도원은 '요양병원'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벼르고 별러서 온' '요양병원'이었던 것이다.

'벼르고 별러서 온 곳'이라는 대목에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다.(필자의 어머니도 그렇게 '벼르고 별러서' 지금 도원에 가 계신다.) '벼르고 별러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른 것이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애써 '도원'(아미타 극락세계)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곳에서 애써 선사들처럼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애써 '마음 밑바닥의 상심 회심 여여심(如如心)을 꺼내어'서 '못에' '대리석 연꽃수반에' '동전들처럼' 던지며, '지루한 표류'가 '끝날 날'(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울새처럼, 울새울음처럼.(그런데 그 울새와 울새울음 위로 1948년생인 정복선 시인의 모습이 오버랩 돼 오는 까닭은? 이 시집이 정복선 시인의 고백록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이 시가 정복선 시인의 비망록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시는 정직하다. 정복선 시인의 이 같은 눈부신 불교적 상상력과 '정직한' 반어(反語)는 이 시집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 '정직한' (불교적) 역설 몇 개만 더 맛보자.

"세상이 나를 찍고 베어 내고 켜고 다듬네/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로 이네 대청마루로 놓네// 세상이 나를 빻고 빻아 명사산(鳴砂山)의 모래로 날리네/ 흩날리며 우네 사막 너머 투르판의 포도나무를 키우네/ 푸른 열매, 건포도가 되네// 세상이 나를 덖고 볶고 찌고 말리고 삶아서/ 나물도 만들고 차(茶)도 만들고 약도 만드네// 손가락에 남은 지문 희미하네/ 내 어머니도 그러하였고 내 딸 또한 그러하겠네// 우울한 날에는 혼자서 구름을 덮고 눕다가/ 문득 말을 타고 달려 나가네" -(이상 〈연기법(緣起法)〉 전문)

"연꽃은 구경도 못했다/ 마하가섭만이 알아챘던 그 염화미소를/ 어디선가 만날 듯 만날 듯/ 건기(乾期)의 끄트머리,/ 먼지투성이의 길, 시장, 마을, 그리고/ 탄소동화작용조차 방해할 듯 나뭇잎새들을 뒤덮은 먼지의 켜/ 땅을 걷기만 하면 구두가 흙색이 되었다/ 우기(雨期)가 오면 모든 길들이 진흙밭이 되리라// 뭄바이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공중화장실/ 심란스런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넝마로 뒹구는 사람들 틈// 수돗가에서 만난 어린 거지소녀의 웃음은/ 그 진흙밭에서 올라온 해맑은 꽃대궁이었다〉-(이상 〈인디아, 내 마음의 릴리프 4-연꽃은 구경도 못했다〉 전문)

그래. 이 사바세계는 아무 곳이나 다 도원이다. 공중화장실이다. 아미타 극락이다. 이 사바세계에서 아미타 극락을 찾지 못하면, 어디 가서 아미타 극락을 찾겠는가. 우리들의 공중화장실에서 해맑은 꽃대궁을 찾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해맑은 꽃대궁을 찾겠는가. 내가 머문 이곳이 바로 도원이요, 아미타 극락이다. 이 사바세계, 공중화장실이 바로 아미타 극락이요, 연꽃이다. 유토피아다. 정복선 시인은 온몸으로 사바세계를 걷고 공중화장실에서 뒹굴고, 서까래로 대청마루로 놓이고, 모래로 흩날리면서도, 지문이 희미하도록 볶고 찌고 말리고 삶음을 당하면서도 말을 타고 달려나가고, 거지소녀의 웃음처럼 공중화장실에서 해맑은 연꽃 꽃대궁으로 올라온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정복선 시인은 이미 그 경계를 걷고 있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